基念標之文에 日 天은 以玄默爲大하니 基道也 普圓이요 基事也 眞一이니라. 地는 以蓄藏爲大하니 基道也 效圓이요 基事也 勤一이니라. 人은 以知能爲大하니 基道也 擇圓이요 基事也 協一이니라. 故로 一神降衷하고 性通光明하니 在世理化라야 弘益人間이라 하고 仍刻之于石하다

天천. 地지. 人인. 以玄默爲大이현묵위대. 以蓄藏爲大이축장위대.

以知能爲大이지능위대. 普圓보원. 效圓효원. 擇圓택원.

眞一진일. 勤一근일. 協一협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효력, 효용, 효과, 효험 등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를 정확히 짚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하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人間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고 충분히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지능, 택원, '以知能爲大'는 인간이 지적인 존재라는 것을 정 다. 때문입니다.

유독 우리 민족은 不義를 보면 참지 못하고(진일)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속도 니다. 그들은 우리의 다른 모습이고 거울입니다. 유태인들을 게을러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고 로 진화하는 지적존재입니다. 인공지능의 출현은 인공지능은 인류가 만드는 마지막 발명품이 될 현은 커다란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 (근일) 서로 싸우다가도 외부에서 누가 건드리기 인류에게는 큰 危機이자 큰 機會가 될 수 있습니다.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발명을 잘 할 은 대량 실업자를 量産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비와 라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똘똘 뭉쳐 각자 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科學에 압도당하는 순간 인 것이며 '탄소 기반의 생명체'인 우리의 생물학적인 사치를 모르는 로봇들이 노동시장을 다 차지한다면 일을 찾아서 물리칩니다(협일). 천지인 三神이 일 간은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 제한을 벗어난 '규소 기반의 생물체'로 진화할지도 소비할 중산층이 없는 자본주의는 생산의 의미를 신강충하기에 가능합니다.

記의 善惡果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아담과 이브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기 껨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도구의 延長線에 불과하지만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으로 개발될 것이고 그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식, 노동, 인터넷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생산의

天地人의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고 未來 人類가 文明이 계급사회에서만 탄생한다는 것은 歷史的 그리고 왜 이런 답을 내었는지를 인간은 분석하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意味가 크다 事實입니다. 노동의 역사는 不平等의 역사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미래를 인간이 아닌 存 기 시작한 것은 종교혁명으로부터입니다. 그것은 고 생각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음미를 해 보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在가 결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다시 생각 인간의 의식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고 거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고 알통이 지향하는 바 原罪는 도구의 발달로 終末을 맞이할 때가 다가 하게 합니다. 오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은 인간에게 축복이 될 우리가 創造主를 否定하고 우리가 창조주의 수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의 역할이

어렵지 않음이요 唯嫌揀擇 오직 간택함을 꺼릴 위협은 전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뿐이니 但莫憎愛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洞 아닙니다.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충분

인공지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人類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는 선택은 인간에게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친 樂觀論을 펴는

工知能의 출현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물학적 원으로 진입시켜줄 지적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입 방식으로 이름은 바뀌지만 양상은 비슷합니다.

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모릅니다. 반도체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규소로 찾을 수 없습니다.

지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당연히 인간의 손길이 필요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들 하는 知性體나 마찬가지인 존재라 제대로 통제가 능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각성할지를 고 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 배운

> 사상들을 내놓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너무나 많은 관론이 지식인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에서도 보여줬듯이 인간보다 낫기 때문에 큰 위기와 큰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 시대

과학혁명에 불이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할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우리를 컸다고 말합니다. 지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 부정하고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자 할 수도 있습니 기에 사회변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 찬가지로 변혁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려면 협일로 그 성품과 작용 그리고 역할을 단순명쾌 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것을 왜 다시 돌 우리는 인공지능을 대할 때 하나의 生命으로 무언가 技術的인 도약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게 풀었습니다.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이보야 하는가 하면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인 존 다루어야 합니다. 염표문에 '以知能爲大'라고 한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을 교육열은 수천 년 전부터 지능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가 인간의 손으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人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차 때 그것을 뒷받침해줄 것입니다. 역사는 비슷한

사람에게 택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묘하지만 創世 합니다. 핵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든 실리콘을 생각하면 근거는 없지만 묘한 느 資本主義의 절대 위기상황에 알통이 나타납니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3요소는 자본, 노동, 가 禁斷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존의 기계들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그대로 흉내내는 방식 토지입니다. 알통이 제시하는 지식자본주의는 지

+

3요소를 완전히 바꾸고 새 판을 짜야 합니다. 로 신흥士大富(new literati)가 등장하면 땅은 누구의 기술과 서비스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습니다. 그들이 생산하는 컨텐츠들은 제대로 보상

일본은 유럽에 속하기를 원하는 나라여서 동양정 맞습니다. 신의 精髓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지식노동시장을 만들기에는 최 점색은 인터넷에서 가장 基本입니다. 인터넷은 '알통블록호출'이라는 새로운 분산처리 시스템을 뇌와 높은 교육수준, 한글보유국, 많은 백수들이 한 것을 찾게 도와주는 것이 검색입니다. 하지만 이 能 향상을 위한 이동 에이전트의 '알통블록호출' 바다를 支配하는 민족, 世界를 지배한다고 했습 대기하고 있는 풍부한 고급노동력 등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노동자들이 움직이면 消費가 살아나고 그것 기술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의 운영체제를 모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21세기의 지식 대항해시대를 당당하게 열어가야 합니다.

모순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세계경제는 항상 不 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安에 떨어야 합니다. 지식자본주의는 불평등의 역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이 광고 매 사도 종식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

고의 환경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뛰어난 두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필요 집어서 찾아 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검색결과를 국난 극복이 취미인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세계 다시 검색해 보는 것은 찾는 사람의 수고입니다. 적인 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알통은 인터넷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검색 인간지능의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알통이 지식자본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본 주의 꽃이라 불리는 廣告가 지식노동자들의 수익이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변신했지만 됩니다. 그렇다고 알통이 광고 하나 가지고 자본 출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글의 영광이고 만족일 뿐 매출 자체가 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신흥 지식인 계층으로 그리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의 國家라는 이유로 세계적인 인터넷기업이 나오지 못한 것을 克服하고,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어 紹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하기 위해 '하둡'이라는 새 보면 우리 人類가 가야 할 길과 그 역할이 明確 로운 분산처리 시스템을 開發했듯이 알통에서도 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 개발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분산 정보 검색의 性 있겠습니다. 移動 에이전트란 쉽게 얘기해서 여러 21세기의 바다는 情報의 바다인 인터넷입니다. 인 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라고 이해하시면 터넷을 支配하는 民族이 世界를 支配할 것입니다.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적용 단계까지는 보완할 硏究와 필드 테스트가 必要 합니다. 알통블록시스템을 개발하고 누구나 이용

알통이 世上에 나온 이유는 明白합니다. 현 世界

는 것은 어떤 意味인지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구글이나 Daum 웹 검색



주식 발행에 관한 공지

지난 광고에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분들의 주식 발행 요청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액공모(모집 금액 10억 미만)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청약은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내일 자 지면에 관련 광고가 게재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검색엔진

인간지능+인공지능

www.altong.com



전화: (02)330-3000 메일: admin@altong.com

+ 제17031호 40판

제17031호 40판 +